

#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해기사의 역할

전해동\* · † 하민재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부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조교수

**요 약**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훈련된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는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의 제4군화 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정예군대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특히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인력은 양성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 교육기반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핵심용어** : 국가안보, 승선근무예비역, 제4군, 필수해기인력, 병역법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해기사의 역할**

**목차**

- I. 서론
- II.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안보적 역할
- III. 국가비상사태시 대체 불가한 필수해기인력
- IV. 국가안보적 역할을 위한 보완사항
- V. 결론

**제1장 서론**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현안사항**

- 국방부의 전환/대체복무제도 단계적 감축 및 폐지 계획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도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오해-특례, 대체복무
- 타 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 제기 가능성 존재

↓

⇒ 승선근무예비역(해기인력)은 국방상 필요한 실질적인 병력이며,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필수해기인력임

**제1장 서론**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개념**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업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국채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
- [병역법 제4장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장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안보적 역할**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훈련된 우수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필수요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육, 해, 공군의 어느 정예 정규군도 승선근무예비역의 임무를 대신할 수 없음.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은 전쟁 또는 비상사태 시 재훈련 없이 즉시 함정 및 수송선대에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해군예비 인력임
- 전시동원 :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서 40세 이하인 사람은 예비역장교 또는 무사관의 병적에 편입(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 교신저자 : 정희원, hmj153@kmou.ac.kr  
\* 정희원, hjeon@kmou.ac.kr

## 제2장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안보적 역할

###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

- 비상시 필요인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필수·지정 및 동원선박 975척(한국선주협회 등록된 한국선박 1,099척 중 필수선박, 지정선박 300척 포함)을 운항하기 위해서 매년 편입되어야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은 최소 1,300명 이상임
-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 제4군화 제도의 정착 필요
- 해운력은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의 하나이며,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의 유지 및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 제3장 국가비상사태시 대체 불가한 필수예비인력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병역법상 제4장(현역병 등의 복무)에 규정되어 제5장(보충역의 복무)과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되어, 현역병임명 대상자로서 국가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승선근무를 현역복무로 간주하고 있음(법 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 상선대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실제로 현역 군복무보다 더 힘든 여건 속에서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바로 이러한 제4군 상선대의 복무를 현역복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LNG 선대의 경우, 135K CBM급, 20knot 속력의 LNG 운반선 선가는 약 2억 달러임. 중동~한국간 항로의 135K 규모의 LNG 운반선 선장은 약 2-3일본의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을 수송하기 위해, 상선사관 및 무원 총 20명 정도의 승무원들과 함께, 대양의 어떤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운항당직 및 일과작업을 지휘하며 중동~한국 간 왕복 약 36일 간의 항해를 완수하여야 하는 지휘관임

## 제2장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안보적 역할

### 국가비상사태시 군수물자보급 및 병력수송

- 상선대 승선근무 인력은 바다의 특수성을 잘 아는 훌륭한 해군예비역이 됨.
- 전쟁 등 유사시 해운력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경험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수송된 물자 중 95%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해상물동량의 80%는 미국선박이 담당하였음.
- 그 이외에도 제1,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 전쟁, 걸프 전쟁 등의 전쟁이 남긴 교훈이 해운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 당시 상선 및 여객선이 병참선 보급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516척의 상선이 침몰되었고, 일본은 60,000명의 해기사가 사망하였음

## 제4장 국가안보적 역할을 위한 보완사항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지위역급

- 승선근무예비역을 정의하고 있는 병역법 제2조 제9항을 "승선근무를 하는 현역으로 유사시 전투에 투입되는 잠재적 전투 병력으로 규정하고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의에 따른 인력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하여 동 제도의 본래 목적과 일치하도록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해야 한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동원체계 구축화

- 승선근무예비역의 전시 임무와 특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3조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은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 편입하여 동원병력으로 활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은 기초 군사훈련 이후 해군이동병으로 제대하게 되어, 해기인력이 동원될 경우 이동병이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는 문제와 이동병이 선박을 지휘하게 되는 지휘체계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의 계급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

## 제2장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안보적 역할

### 국가비상사태시 군수물자보급 및 병력수송

- 베트남 전쟁(1965~1972) 중에도 총 8,750만톤의 전쟁물자가 해상으로 운반되었으며, 이 중 65%에 해당하는 5,540만톤이 상선을 통해 수송되었음
- 포클랜드전쟁(1982년) 당시에도 민간선박 53척을 동원하여 1,380만톤을 수송하였음
-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걸프전쟁(1990년)은 육·해·공군의 종합적인 현대전쟁으로 대규모 병력을 원거리까지 신속하게 투입하고 병참능력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전쟁이었음. 걸프전쟁 당시 미국에서 424만톤, 기타 유럽에서 22만톤, 아시아에서 9만톤의 병참이 수송되었고, 우리나라 국적선도 일부 참여하였음

## 제5장 결론

-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 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시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정예군대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임
-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인력은 양성기간(Time lead)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 교육기간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음(미국 C. J. Parker)
-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야 함